

제조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관련된 교육적 진단요인 특성 : PRECEDE 모델을 기반으로

박경옥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보건관리학과

- **연구의 중요성**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상황이나 환경적 위해요인으로부터 근로자 스스로 적절한 안전 및 건강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 입각하여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육대상인 근로자들의 교육 참여도에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어서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체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PRECEDE 모델의 교육적 진단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와 관련된 교육적 진단요인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사업장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147개 제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 521명이었다.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안전보건분야의 4개 노동부 지정교육기관, 1개 관련 시민단체, 1개 노조단체를 통해 섭외되었고 조사는 섭외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앞으로 설문지를 우편발송하여 안전보건관리자에 의해 사업장당 3-5명의 일반근로자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외에 PRECEDE 모델의 주요 변수영역 중 교육적 진단단계의 소인요인, 강화요인, 가능요인 영역에 해당하는 특성들이 포함되었다. 소인요인으로는 안전보건교육 요구도, 교육효과에 대한 효능감, 필요성 인식도로 구성되었고, 강화요인은 사내외 주요 인사나 단체의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지도로 구성되었으며, 가능요인으로는 안전보건교육담당자의 교육역량,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기반환경 및 행정적 여건으로 구성되었다.
- **연구결과** : 사업장 규모별로 50인 미만과 50인 이상으로 나누어 대상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의 비율이 약 8:2 정도였고 고졸 이하가 50% 정도였다. 사업장내 유해인자 노출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83.4%,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71.6%였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93.9%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보다 적은 73.2%로 나타났다. 일일 근무시간을 살펴볼 때,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보다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비율

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50인 미만에서는 41.1%였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7.8%로서 법적 의무화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실시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근로자의 비율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45% 정도로 나타났다.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효과에 대한 효능감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4.3%,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45.0%로서 비슷하였다. 안전보건교육 요구도를 전체와 3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의 요구도 점수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보다 높았다. 영역별로 볼 때, 산업재해예방 실무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강화요인으로 경영자, 근로자, 노동조합관계자, 지역사회 공공기관, 관련 시민단체의 관심과 지지도를 살펴본 결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경영자의 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 점수가 가장 높아 유의미한 강화요인이었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관련 시민단체의 관심과 지지도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능요인으로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기반환경에서 작업장 청결, 유해환경 지도, 유해환경 최소화를 위한 환경구축, 보호구 제공 모두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교육 받은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도가 더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의 교육역량에 대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의 핵심 업무능력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문제 및 요구도 진단, 교육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효과 평가, 교육자료 및 매체 제작, 안전보건교육 정보수집능력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서 현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들 대부분이 산재 및 직업병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으나 교육능력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결론 및 토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보다 소인성 요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요구도와 효능감이 낮았고, 강화요인에 있어서는 사내 경영층의 관심도가 핵심적인 강화요인이었으며 사외 지지도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서 지역사회 관련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한 협력/지원활동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능요인 측면에서는 안전보건교육 환경기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고 특히,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의 핵심교육능력 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근로자들의 교육에 대한 동기유발을 약화시키고 교육효과에 대한 기대 및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사내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의 핵심교육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연수교육 체계 및 교육과정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